

# 현안과 과제

2013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
- 국내 경기 복원력 제고가 시급하다

## 1. 2012년 경제 특징

### ○ 국내 경제는 내외수 경기가 모두 부진 양상 지속

- 내수 부진 :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건설 및 설비 투자의 부진세도 이어짐
  -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2012년 2/4분기 전년동기대비 1.1%로 3분기 연속 1%대 지속
  -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건설 경기 침체와 공공부문 투자 위축 등으로 2012년 2/4분기 2.1% 감소,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급감 등으로 2/4분기에 -3.5%로 1/4분기 8.6% 대비 큰 폭으로 감소
- 수출 감소 :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모두 급락하여 '불황형 무역수지 흑자' 기록
  - 2012년 1~9월까지 수출은 15% 감소, 수입은 0.9% 감소
  - 수출 증가율이 8월 -6.2%, 9월 -1.8%로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, 수입은 8월에 -9.7%, 9월 -6.1%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
  - 무역수지는 1~9월 기간 중 18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양상
- 성장률 급락 :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2/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.3%, 전기대비 0.3%로 하락

#### <국내 경제 부문별 실적 추이>

(단위 : %, 억 달러)

| 성장률   | 2010  | 2011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2012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      |       | 1/4          | 2/4             | 3/4           | 4/4            | 연간             | 1/4          | 2/4           | 3/4            | 9월    |      |
| 경제성장률 | 6.3   | 4.2<br>(1.3) | 3.5<br>(0.8)    | 3.6<br>(0.8)  | 3.3<br>(0.3)   | 3.6            | 2.8<br>(0.9) | 2.3<br>(0.3)  | -              | -     |      |
| 내수    | 민간소비  | 4.4          | 2.9<br>(0.6)    | 3.0<br>(0.8)  | 2.1<br>(0.2)   | 1.1<br>(-0.4)  | 2.3          | 1.6<br>(1.0)  | 1.1<br>(0.4)   | -     | -    |
|       | 건설투자  | -3.7         | -11.0<br>(-4.4) | -4.2<br>(3.5) | -4.0<br>(-0.5) | -2.1<br>(0.1)  | -5.0         | 1.5<br>(-1.2) | -2.1<br>(-0.4) | -     | -    |
|       | 설비투자  | 25.7         | 10.3<br>(-1.6)  | 7.7<br>(4.7)  | 1.2<br>(-1.8)  | -3.3<br>(-4.3) | 3.7          | 8.6<br>(10.3) | -3.5<br>(-7.0) | -     | -    |
| 외수    | 경상수지  | 293.9        | 26.1            | 54.9          | 69.0           | 115.1          | 265.1        | 25.6          | 111.9          | 85.0  | -    |
|       | 무역수지  | 411.7        | 70.4            | 83.1          | 63.0           | 91.6           | 308.0        | 13.9          | 94.6           | 79.2  | 31.5 |
|       | 수출    | 4,664        | 1,310           | 1,426         | 1,413          | 1,404          | 5,552        | 1,349         | 1,402          | 1,333 | 457  |
|       | 증가율   | 28.3         | 29.6            | 18.6          | 21.4           | 9.0            | 19.0         | 3.0           | -1.7           | -5.6  | -1.8 |
|       | 수입    | 4,252        | 1,239           | 1,343         | 1,350          | 1,312          | 5,244        | 1,335         | 1,308          | 1,254 | 425  |
| 증가율   | 31.6  | 26.3         | 27.1            | 27.7          | 13.4           | 23.3           | 7.7          | -2.6          | -7.1           | -6.1  |      |
| 고용    | 실업률   | 3.7          | 4.2             | 3.4           | 3.1            | 2.9            | 3.4          | 3.8           | 3.3            | 3.0   | 2.9  |
|       | 청년실업률 | 8.0          | 8.8             | 7.9           | 6.7            | 7.1            | 7.6          | 8.2           | 8.1            | 6.8   | 6.7  |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.

## 2. 경제 전망의 전제

### ○ (세계 경기) 2013년에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2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

- 선진국 : 2013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위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회복과 기저효과 등으로 1%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
  - 미국 : 주택 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소비 회복, 제조업 생산의 증대 등으로 성장률이 2%대를 기록할 전망
  - 일본 : 재건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1%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
  - 유로존 :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 및 고용 부진이 지속되나 성장률은 기저효과 등에 의해 0%대로 회복될 전망
- 신흥개도국 : 2013년 신흥개도국 경제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2012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나 회복세는 미약
  - 중국 : 신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소폭 개선되어 8%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

### ○ (세계 교역)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로 2013년 세계 교역량은 소폭 증가할 전망

- 국제통화기금(IMF)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12년 3.2%에서 4.5%로 소폭 상승

< 국제통화기금(IMF)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 (%) >

| 구분    | 2010 | 2011 | 2012(E) |        |         | 2013(E) |     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 |      |      | '12.4월  | '12.7월 | '12.10월 | '12.4월  | '12.7월 | '12.10월 |
| 세계    | 5.1  | 3.8  | 3.5     | 3.5    | 3.3     | 4.1     | 3.9    | 3.6     |
| 선진국   | 3.0  | 1.6  | 1.4     | 1.4    | 1.3     | 2.0     | 1.9    | 1.5     |
| 미국    | 2.4  | 1.8  | 2.1     | 2.0    | 2.2     | 2.4     | 2.3    | 2.1     |
| 일본    | 4.5  | -0.8 | 2.0     | 2.4    | 2.2     | 1.7     | 1.5    | 1.2     |
| 유로존   | 2.0  | 1.4  | -0.3    | -0.3   | -0.4    | 0.9     | 0.7    | 0.2     |
| 신흥개도국 | 7.4  | 6.2  | 5.7     | 5.6    | 5.3     | 6.0     | 5.9    | 5.6     |
| 중국    | 10.4 | 9.2  | 8.2     | 8.0    | 7.8     | 8.8     | 8.5    | 8.2     |
| 인도    | 10.1 | 6.8  | 6.9     | 6.1    | 4.9     | 7.3     | 6.5    | 6.0     |
| 아세안-5 | 7.0  | 4.5  | 5.4     | 5.4    | 5.4     | 6.2     | 6.1    | 5.8     |

자료 : IMF

○ (주요국 환율) 유로화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엔화 가치는 보합세, 위안화 가치는 상승할 전망

- 유로화 :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약세가 지속될 전망
- 엔화 :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엔화 가치는 소폭 하락하나 보합세 지속
- 위안화 :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지속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상승할 전망

○ (국제 원자재) 세계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재고 증가로 2013년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12년에 비해 하락할 전망

- 원유 : 세계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수요가 점차 회복되나 재고 증가 등으로 유가 하락
  -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(CERA)는 두바이유가 2012년 연평균 106.9 달러에서 2013년 연평균 92.1 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
- 곡물 원자재 : 2012년에 비해 국제 곡물 공급량이 증가하는 가운데,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증가세 둔화로 2013년에 소폭 하락

<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>

|    | 달러/유로 |       |        | 엔/달러  |       |        | 위안/달러 |       |       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 | 3개월 후 | 6개월 후 | 12개월 후 | 3개월 후 | 6개월 후 | 12개월 후 | 3개월 후 | 6개월 후 | 12개월 후 |
| 평균 | 1.28  | 1.27  | 1.24   | 78.86 | 80.08 | 82.31  | 6.33  | 6.31  | 6.26   |
| 최고 | 1.35  | 1.37  | 1.40   | 84.00 | 85.00 | 89.00  | 6.40  | 6.35  | 6.35   |
| 최저 | 1.20  | 1.17  | 1.15   | 74.00 | 72.00 | 72.00  | 6.29  | 6.25  | 6.20   |

자료 : 국제금융센터(2012.10.8).  
주 : 14개 국제 투자은행의 전망치.

< 국제 유가 전망(두바이유) >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 CERA(2012.9.19).  
주 : 2012년 4/4분기부터는 전망치.

### 3. 국내 경제 전망

□ 2013년 한국 경제는 2012년 보다 회복된 3%대 중반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

#### ○ 내수 부문

##### - 민간소비

- 2012년 : 상반기에 민간소비가 1.3%로 부진.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,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여력 미약으로 연간 증가율이 1.3%에 그칠 것으로 전망
- 2013년 : 물가안정 지속, 내수 진잔책 등으로 전년보다 개선된 연간 2.9% 증가율 전망

##### - 건설투자

- 2012년 : 상반기에 건설투자가 -0.6%를 기록, 건설기성도 -7.6% 증가율을 나타내며 침체. 민간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어 연간 증가율은 -0.2%로 예상
- 2013년 :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나 SOC 투자 예산<sup>1)</sup> 증가, 기저효과 등으로 건설투자는 2012년보다 다소 개선된 연간 2.5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
##### - 설비투자

- 2012년 : 2012년 1/4분기 회복세를 나타내던 설비투자가 2/4분기에 악화되어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2.2%를 기록.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설비투자 부진으로 연간으로는 1.6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- 2013년 : 미약하나마 내외수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높은 연간 5.6%를 기록할 전망

1) 국가 전체의 SOC 예산은 2009년 25조 3,000억원에서 2010년 25조 1,000억원, 2011년 24조4,000억원, 2012년 23조1,000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. 2013년에는 SOC 예산이 23조 9,000억원으로 소폭 증가.

## ○ 대외거래

- **2012년** : 유럽재정위기의 지속과 이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급감하여 1~9월까지 -1.5%를 기록. 무역수지는 수입 동반 감소로 1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불황형 흑자 양상을 보임
  - 2012년 수출증가율은 -1.2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, 무역수지는 2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
- **2013년** : 미국, 유럽 등 선진국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중국 수출 경기의 완만한 개선, 올해 수출증가율 급감에 따르는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수출증가율은 9.8%를 기록할 전망
  - 무역수지는 수출이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2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

## ○ 고용과 물가

- **고용**
  - **2012년** :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취업확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 증가로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40만명 내외의 높은 취업자 증가수를 기록. 연간 실업률은 3.3%로 예상됨
  - **2013년** : 2013년 고용은 올해 고용의 큰 폭 증가에 따르는 기저효과와 성장 둔화에 따르는 경기후행적 반응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. 연간 실업률은 2012년과 동일한 3.3%를 기록할 전망
- **물가**
  - **2012년** :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, 정부의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,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이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기여.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.4%로 전망
  - **2013년** :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등으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대비 소폭 상승한 2.6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
○ 환율

- 원/달러 환율

- 2012년 : 원/달러 환율은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상반기에 가치가 절하되었으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경기부양 기대감 등으로 원/달러 환율은 하반기에 들어서는 절상 추세
- 2013년 : 경상수지 흑자 지속,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

< 2013년 주요 경제 지표 전망 >

| 구 분              |            | 2011  | 2012(E) | 2013(E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국<br>민<br>계<br>정 | 경제성장률(%)   | 3.6   | 2.5     | 3.5     |
|                  | 민간소비(%)    | 2.3   | 1.3     | 2.9     |
|                  | 건설투자(%)    | -5.0  | -0.2    | 2.5     |
|                  | 설비투자(%)    | 3.7   | 1.6     | 5.6     |
| 대<br>외<br>거<br>래 | 경상수지(억 달러) | 265   | 310     | 260     |
|                  | 무역수지(억 달러) | 308   | 263     | 268     |
|                  | 수 출 (억 달러) | 5,552 | 5,488   | 6,026   |
|                  | (증가율, %)   | 19.0  | -1.2    | 9.8     |
|                  | 수 입 (억 달러) | 5,244 | 5,225   | 5,758   |
|                  | (증가율, %)   | 23.3  | -0.4    | 10.2    |
| 소비자물가(평균, %)     |            | 4.0   | 2.4     | 2.6     |
| 실업률(평균, %)       |            | 3.4   | 3.3     | 3.3     |
| 원/달러 환율(평균, 원)   |            | 1,108 | 1,125   | 1,095   |

#### 4. 시사점과 정책 과제

□ 2013년에 국내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3%대 중반의 성장이 예상되나, 지속적인 경기 활력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

- 한편,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, 국내 경제가 2%대에 머무는 'L'자형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

#### □ 단기 정책 과제

##### ○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유지

-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
  - 단기 재정 적자에 연연하지 말고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
  - 중기 재정 균형을 목표로 2013년에 재정 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
  -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전제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, 기금별 추가 지출 소요 발굴,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추진
-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계획 수립 추진 지속
  -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 투자 확대, 자연재해 발생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'상하수도 개선과 확장 사업' 등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등

##### ○ 적극적 기업 금융 확대

- 경기둔화로 일시적 재정난으로 '흑자도산'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증대
  - 기업 자금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능력 확충 방안 검토
  -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세금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을 확대 적용
  - 건설업 등 경기 침체 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 확대
  - 단, 기업의 외화대출 리스크 관리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

##### ○ 기업 투자 심리 개선

- 기업경영 규제 등 각종 규제 해소와 투자 애로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
  - 특히 국내외 기업 투자를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, 자유경제구역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



- 해외 투자 기업의 국내 회귀(U턴)에 대한 수요 조사와 애로 요인 해소
- 경기 불황기 R&D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확대

### ○ 서민 가계 심리 불안 해소와 물가 안정

- 가계 부채 부실 확산 차단, 부채 상환 능력 제고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 및 수요 증대를 유도
  - 고위험군의 다중 채무자를 위한 구조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방안 등 강구
  - 햇살론 등 서민 금융을 확대하고 저신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 알선과 직업 훈련 및 채무 상황을 패키지로 관리하는 '종합 서비스' 제공
-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 방지
  -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취득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연장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유도
  - 가계부채와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대출상환기간 연장 등 마련

### ○ 수출 증대 노력 지속

-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및 세제 지원 지속
  -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수출금융 확대,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 지속
- 수출 틈새시장 개척 및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
  -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동, 남미, 인도, 아프리카 등의 신흥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각국 상황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을 수립
  - FTA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, FTA 관련 인력 확충 및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극대화

### □ 중장기 정책 과제

#### ○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

-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성장 정책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소비자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의 '경제 의욕'을 진작

경제연구본부 임희정 연구위원 외(02-2072-6218, limhj9@hri.co.kr)